

제천약령시 전통과 의약문화

안상우

目 次

- | | |
|------------------|--------------|
| 1. 머리말 | 4. 제천의 의약문화 |
| 2. 약령시(藥令市)의 의미 | 5. 제천약령시의 특징 |
| 3. 제천약령시의 기원과 성장 | 6. 맺음말 |

【 초 록 】

약령시의 명시적 기원은 조선 효종 9년(1658)에 진라도, 경상도, 강원도 각 도에 약령시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조선시대 약령시의 공식기원이라 할 수 있다. 약령시의 개설시기와 운영방식은 다양하였다. 약령시는 대구, 원주, 전주, 공주, 진주, 청주, 충주, 대전, 개성, 제천 등지에서 약령시를 개설했으며 약령시는 약재의 교환, 매매를 담당하는 시장을 일컫던 말로서 영시(令市)라고도 한다. 이러한 약령시는 지역에 따라 발달되고 확장되어 왔다.

그 중에서 제천약령시는 태백산맥의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많은 향토 약재 생산지와 인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재거래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제천에는 의약설화와 의약인물 등 다양한 의약문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제천약령시는 한약재의 유통기능만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풍부한 생산지, 우수한 한약재, 발달된 약재가공과 기술인력, 문화사적인 기능도 포함

필자 : 한국한의학연구원 전통의학연구본부장.

272 지방사와 지방문화 12권 2호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약령시의 기능과 뚜렷이 구별되는 ‘약령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제천약령시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앞으로 다양한 의약문화와 결합하여 제천약령시만의 독창적인 의약문화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한의학, 약령시, 제천, 의약문화, 의약설화

1. 머리말

의약문화¹⁾와 관련된 영역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약령시(藥令市)’를 들 수 있다. 약령시는 ‘시장’ 중에서도 ‘특수시장’의 일종이다.

특수시장이라 함은 일반시장과는 달리 거래되는 상품이 한정되어 있는 시장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²⁾ 일반시장에서는 주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특산물 재배지역이나 화물의 집산지인 경우 거래되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전문시장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수시장의 품목은 지역별 특이성과 품목으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시장, 어시장이 있으며 ‘약령시’도 그 중에 하나이다.

약령시는 영시(令市)라고도 하는데 장시와 마찬가지로 정기시장에 속했지만 성격이 달랐다. 장시는 매월 6회에 걸쳐 하루씩 장이 열리는 것이었지만 약령시는 연 2회 열렸고, 개시기간은 10일 이상이었다. 그리고 전국의 의료업자들이나 상인들이 모여들어 대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약령시를 특수시장으로 분류하

1) ‘의약문화’란 기존의 ‘문화’ 개념과 의약과 관련한 의미를 부여한 양식을 말한다. 모든 문화의 영역은 그 고유성에 따라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

2) 김대길, 2007, 「특수시장」『시장을 열지 못하게 하라』, 가람기획, 88쪽.

기도 한다.³⁾

문헌상으로 우리나라의 약령시는 효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체화 되었다. 약령시의 명시적 기원은 조선 효종 9년(1658년)에 경상, 전라, 강원 각도의 관찰사의 소재지인 대구, 전주, 원주에 명령하여 각 도 내의 약재를 조정해 헌납시키기 위한 약시(藥市)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조선시대 약령시의 공식적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약재의 유통과 상업발달에 따라 약령시 분포가 지역에 따라 크게 확장되었다. 충북 제천의 약령시는 태백산 일대의 산간지역에서 채취 혹은 재배하는 약재 생산을 중심으로 약재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사통팔달 발달된 교통의 이점을 활용해 물류중심지로서 발전해 왔다. 또한 제천은 의약문화와 함께 풍부한 의료민속과 설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천지역의 의약문화적 배경은 현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 바이오엑스포를 비롯한 일련의 한방산업에 유효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으며 향후 의약문화산업의 발전에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천약령시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유구한 의약문화의 고장으로서는 '제천약령시'의 전통과 의약문화에 대하여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근대 고신문 및 문헌자료를 통해 제천약령시의 근대적 기원을 추적해 보았고, 역대문헌조사를 통해 제천의 우수 약초 및 의학인물을 발굴하였다. 또 제천지역의 문화와 제천약령시의 발달 과정을 추적하고 탐방 채록하였다. 이를 통해 '제천약령시'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체계를 정립할 수 있었으며 제천의 의약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산업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3) 같은책, 88쪽.

2. 약령시(藥令市)의 의미

1) 약령시 명칭의 어원

일반적으로 각종 약재를 교환, 매매하는 시장을 옛날부터 일컫던 말로서 영시(令市)라고 불려왔다. 약령시라는 명칭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설이 유력하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개설되었기에 명령의 의미를 딴 영시(令市) 또는 약령시라 하였다는 설이다. 다른 하나는 약재를 채취하는 시기와 기준인 월령(月令), 즉 계절에 따라서 열리는 시장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다.

권병탁(1986)에 따르면 영시는 관의 명령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계절 '令'자,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연다는 계절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약령시는 역대로 春秋 양 철에 개시되며 약재공물도 주로 이 兩季節에 收納되었다. 일부의 한약재는 가을에 採取收獲하여 끝손질하는 사이에 봄이 되고 대부분의 약재는 여름, 가을에 채취되어 늦가을에 完品化하기 때문이다. 즉 봄과 가을은 사계절 中 약철이라는 것이다. 또 『輿地圖書』, 古典道誌, 邑誌의 進上條에는 正月令, 二月令, 三月令 등 '令'字가 얼마든지 나타나고 농가월령가의 '令'과 三月令, 春令, 秋令의 '令'도 한결같이 時概念이므로 약령시는 영시라고도 하고 봄에 열리는 것을 「春令時」, 가을에 열리는 것을 「秋令市」라고 하는 것은 봄철 약시장, 가을철 약시장이란 뜻이며 계절에 따라 열리는 시장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⁴⁾

약령시가 생기게 된 이면에는 조선 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재 즉 당약(唐藥)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 즉 향약(鄉藥)으로 대체

4) 권병탁, 1986, 「대구약령시의 보건경제사적 고찰」 『대구약령시론』, 영남대학교출판부, 105~121쪽.

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17세기부터 중국산 약재의 수급 두절에 대비하여 한반도에서 자생 혹은 재배 가능한 약재로 자급자족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과의 의약교류가 단절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우리나라 약재와 의료술을 중심으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려 한 효종의 정책적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효종은 재위 내내 북벌을 꿈꿨으며, 북벌을 주창한 송시열은 조선에서 자급자족 가능한 약재와 의료술을 정리한 『삼방(三方)』⁵⁾을 편찬하였다.⁶⁾ 또한 효종조에 대구, 원주, 전주에 약령시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중국과의 교역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향약재를 조달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약령시 설치의 의미를 연계하여 파악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2) 약령시의 형성 배경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하여 외국에서 들어오는 약재, 즉 당약(唐藥, 또는 唐材)과 함께 향약을 같이 써왔다. 조선 초기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 즉 향약의 당약과의 비교연구와 그 자급자족을 위하여 채취와 재배가 각지에서 장려되고 성행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약재는 지방관에서 중앙관아, 주로 제생원(濟生院, 뒤에 惠

5) 『삼방(三方)』은 효종의 명으로 조선의 명의를 총동원하여 편찬하였으며 그 중에서 요긴한 내용만 추려서 재편된 것이 『삼방촬요』라는 의방서이다. 이를 통해 『삼방』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다. 불모로 끌려가 후금의 연경 공략에 동원되었던 봉림대군은 소헌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뒤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훗날 왕위에 등극한 효종은 이때의 치욕을 설욕하고자 절치부심하는데 이때 북벌을 위해 준비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전쟁에 대비한 향약의서의 편찬이었고 이것이 곧 이 책의 편찬 배경이다.

6) 안상우, 2007, 「三方」『고의서 산책』, 민족의학신문 624호~626호.

民署) 전의감 내의원 등에 진상되어 그 수요에 충당되고, 민간에는 잉여품 또는 자가채취, 재배한 것이 유통되었다. 그러다가 중종 이후 임진왜란 때까지 의약계는 다시 당약 사용이 많아져서 약전은 황폐하였다. 그러나 공납은 계속되었고, 약재의 상납에는 여러 가지 폐단과 여기에 관여하는 관리의 사기 등으로 공납하는 사람을 괴롭혔다. 또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도 약재가 부족하였고 북벌론의 분위기 속에서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향약의 자급자족이 강조되었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공납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고 약재 역시 대동법에 따라서 거래질서를 잡기 시작한 것이 약령시가 생기게 된 것이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약령시의 발생배경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조정에 필요한 약재를 수집하기 위해 개설했다는 설과 중국 또는 일본에 수출하기 위한 무역품으로서의 한약을 수집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설 등이 있다.⁷⁾ 무역품으로서 약재 시장의 형성은 양대 왜란 이후 재개된 대일무역에서 대량의 약재에 대한 수출을 요청받았다는 사실이다. 인조 16년(1638)부터 19년(1641) 사이에 일본 막부로부터 다량의 약재를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⁸⁾은 곧이어 효종대에 약령시가 설치되는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약재는 쌀이나 다른 곡물과는 달리 채취·보존·진위양부(眞僞良否)의 감별에 특수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데, 그 집산이나 공납 거래에 관한 특설기구로 탄생한 것이 일반 장시가 아닌 특수 목적의 약령시가 발생하게 된 기원으로 잡는 견해도 있다.

7) 김대길, 앞의 책, 89쪽.

8) 박경용 외, 2001, 「대구약령시의 형성과 발전 : 변화와 지속」 『대구약령시 한방문화 연구』, 대구광역시·약령시보존위원회, 85쪽.

3) 약령시 기원과 변천

약령시의 기원에 대한 기록은 문헌상으로 효종 때부터 구체화되었다.⁹⁾

조선 효종 9년(1658년)에 전라, 경상, 강원 각도의 관찰사의 소재지인 대구, 전주, 원주에 명령하여 각도 내의 약재를 조정에 헌납시키기 위한 약시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전주, 대구, 원주는 예로부터 약재가 집산되기 쉬운 도회지였기 때문에 감영이 소재한 대구, 원주, 전주의 3개소에서 먼저 약령시가 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기의 약령시는 그 도의 관찰사의 관리에 속하였고, 감령이 약령시에 관한 시설·취재·재판 등을 관장하였으나 갑오경장 뒤에 중앙정부의 통제는 폐지되었다. 이는 약령시가 관위주의 약재수급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민간위주의 상업적 유통시장으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한말 상업 진흥을 위하여 시행된 정책적 수단 중 핵심적인 것이 바로 약령시의 설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약재의 유통이 당시 국가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약령시가 설치될 만한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지역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¹⁰⁾

약령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대구약령시를 들 수 있다. 대구약령시는 1658년(효종 9)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뒤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개설시기와 그 운영도 다양하였지만, 대구 이외에 원주·전주·공주·진주·청주·충주·대전·개성·제천 등지에서도 약령시를 개시하였다. 한약재의 유통과 관련한 약령시의 이러한 위상

9) 안상우 외, 2008, 「역사 속의 제천약초와 제천약령시의 흥성」『제천약초 뿌리찾기와 한의약 문화연구』, 제천시·한국한의학연구원, 149쪽.

10) 권오민 외, 2008, 「근대 신설 약령시 연구」『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14, 42쪽.

은 일차적으로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의 공급이라는 보건·의료적 기능과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원동력으로서 경제적 기능을 다해 왔으며 한말 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화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약재의 시장적 유통기능을 창출하였다.

조선 중기 약령시의 약재는 관변에서 중국에 대한 조공수요를 포함해서 조정 소요량을 구입하였는데, 이 구입방법으로는 인삼의 경우 관찰사가 영시에 참여하는 상인중에서 선택된 유명경상인 6인과 향삼상 6인 도합 12인의 상인으로부터 인삼을 제공하게 하고, 시약관의 검사를 통하여 매수하였다. 또한 귀중한약재인 복령, 복신 등에 대하여는 관찰사가 의생 중에서 복령접장을 선임하여 시품 중에서 심사매수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정의 심사관이 먼저 매수를 끝낼 때까지 일반인의 거래가 금지되어있었다는 사실이다. 약령시의 약재는 조정매수대상으로 그 품질이 매우 우수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약령시는 관찰사의 관리대상으로 감영에서는 약령시에 관한 시설, 경찰, 소송재판 등의 일체업무를 관장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약령시 개시 주체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관부매상관행이 없어지고 약종상의 자치단체인 상계가 약령시를 주관하였다. 약재의 관부매상 제도가 있었던 갑오경장까지는 매년 음력 2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10일간씩 약령시가 춘령시와 추령시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열렸었다. 갑오경장 이후 관부매상이 없어지자 약령시 개시일자에 변동이 생기기 시작하여 4월과 11월, 12월 등 다소 불규칙적으로 열렸다.

일제 강점시기인 1914년부터 일제의 시장규칙 제정을 통한 약령시 탄압정책으로 춘령시는 아예 폐지되고 추령시만 11월 내지는 12월에 1개월가량 열렸었다. 한편 일제는 약초채취규정을 제정하여 약초의 남채를 금지시키고 1938년 5월 4일 국가총동원법과 1938년 10월 조선물



〈그림 1〉 시대별 약령시의 변천¹¹⁾

품판매가격 취체규칙, 1939년 10월에 조선물가통제령 등의 각종 법령을 만들어 약재거래를 통제하기도 하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조선 효종 9년,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일제 강점시기인 1914년 이후로 그 성격을 나눌 수 있다.

4) 약령시의 성쇠

약령시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약령시, 전주약령시, 원주약령시, 청주·충주약령시, 공주약령시, 진주약령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구약령시는 조선 효종 9년(1658년) 무렵 당시 경상도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任義伯 감사의 주선으로 대구성 북문 근처의 객사 뜰에서 매년 2회 개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¹²⁾ 춘령시는 음력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열렸고 추령시는 음력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열렸다. 객사를 중심으로 봄에는 남쪽에 춘령시를 개설해 남시(南市)라 했고 가을에는 북쪽에 추령시를 개설해 북시(北市)라고 했다. 약령시가 열리는 기간에는

11) 권오민 외, 위의 논문.

12) 권병탁, 1992, 『정통대구약령시』, 경산:성암출판사, 95~101쪽.

각 지방에서 상인을 비롯해 의원들이 모이고 객주·여각·거간 등 중간 상인도 모여들었다. 이 기간에는 약재 거래 이외에 숙박업·금융업·창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몫을 거머쥐는 기회로 이용하기도 했다.¹³⁾

전주약령시는 대구약령시와 함께 효종 대에 설치되었다. 개최시기는 대구보다 늦어 춘시는 음력 3월 15일에서 같은 달 25일까지, 추시는 음력 10월 15일에서 25일까지 열렸다. 전주 약령시는 공주약령시가 생기면서 쇠퇴하였고 폐지되었다.

원주약령시는 강원 관찰사의 관할 하에 있었다. 춘시는 음력 정월 25일에서 같은 해 2월 5일까지, 추시는 같은 해 9월 25일에서 10월 5일까지 열렸다. 원주약령시는 수백 년간 계속 되었지만, 교통의 불편과 이곳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의원 등의 감소로 차츰 그 상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철종 12년(1861)경에 폐지된다. 1905년 약령시의 재건을 시도했으며, 20년대 경에 부활 움직임이 있긴 하였으나 제천약령시의 신설로 원주약령시는 다시 개설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주·충주약령시는 한말에 설치되었으나 약재의 출시가 미비하여 2년 후에 폐지되었다. 광무 7년 1월 7일자 황성신문에 의하면 충청도 관찰사 조종필이 농상공부에 보고하여 그해부터 충주에 약령을 신설하는데 춘시는 음력 3월 초 3일, 추시는 음력 9월 초5일로 정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뒤에 논의하겠지만, 충주가 지리적으로 제천과 매우 인접하였던 것으로 인해, 충주약령시는 제천약령시의 성립과 함께 경쟁관계에서 밀려나 개설시도가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

공주약령시는 영조 17년(1741) 공주지방 유지들이 이 지방의 번영을 위해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탐지한 전주지방민들이 크게 반발하여 8~9년간 소송을 했었다. 거리상 멀지 않은 곳에 같은 약령시가 개설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곳

13) 김대길, 앞의 책, 92~93쪽.

은 전주였으니 전주의 상인들이 크게 반발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공주측이 소송에서 이겨 공주에도 약령시가 개설되기 이르렀다. 공주약령시는 춘시가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열렸고 추시는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열렸다. 공주약령시는 그 후 약 160년간 지속되다가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약재의 관부 매상이 중단되면서 점차 부진하여 1905년경에 폐지되었다.¹⁴⁾

진주약령시는 공주보다 늦은 19세기 말에 설치되었으나 5년여 만에 폐지되었다.

3. 제천약령시의 기원과 성장

1) 제천약령시의 기원

조선시대 정부규제의 약령시는 상당정도 정부관련 기록 속에서 기원에 관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나 일제시대 때의 약령시는 민간시장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조되어 정부공식문서에 서 그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당시의 고신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바탕으로 제천약령시에 관한 기록을 추적하였다.

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db.history.go.kr>)에서 ‘약령시’ 나 ‘약령’으로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황성신문 1899년 10월 28일자와 1903년 9월 25일자에 약령개설과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다. 농상공부에서 13도에 약령일자를 훈령 게시하였는데 대구 춘시(春市)는 3월 초1일, 추시(秋市)는 10월 초1일, 진주·공주는 춘시 4월 초1일, 추시 11월 초1일, 충주는 5월 초1일, 12월 초1일, 춘천은 2월 초1일, 9월 초1일이라

14) 김대길, 앞의 책, 93쪽.

고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던 대구, 전주, 공주, 진주, 청주 등지에 약령시가 속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년대 이후에는 함흥, 원산, 개성, 대전, 제천 등지에도 약령시가 새로 개설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원주와 충주의 약령시에 관한 사항이다. 원주와 충주는 제천보다 이른 시기에 약령시가 설치되었고 제천과 인접하여 경쟁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28년 11월 22일 동아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원주약령시 준비회 개최’에 대한 기사만 보이는데 그 이후 원주 약령시 개설에 관한 관련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원주약령시가 한말에 중단된 이후 속개되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충주약령시에 대한 기사도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조사결과 역사정보통합검색시스템에서 제천약령시에 대한 기사는 3건의 검색 결과를 얻었고 조선일보 자체의 고신문 데이터베이스에서 2건의 제천약령시 관련 기사가 검색되는데 이들 기사가 제천약령시의 기원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특히 1건의 기사에서는 충주약령시가 속개되지 못한 연유가 제천약령시의 신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동아일보에 실린 ‘원주약령시준비회’에 관한 기사보다 열흘 정보 빠른 1928년 11월 12일자 중의일보에 제천에서 약령이 신설된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이 기사에는 제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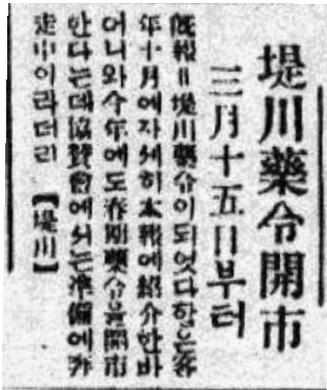
〈동아일보 1928년 11월 22일 기사〉



〈중의일보 1928년 11월 12일 기사〉

약령시가 개설되는 이유로 ‘해륙산물집중(海陸産物集中)’을 들고 있으며 이는 제천이 위치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사 내용 중에는 처음부터 충주에 약령시를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제천의 부단한 노력으로 충주 대신에 제천에 약령시가 신설되었다고 믿고 있다. 같은 신문 1929년 04월 24일자 기사에는 같은 해 03월 15일부터¹⁵⁾ 개최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중의일보 1929년 04월 24일 기사〉



〈동아일보 1931년 11월 19일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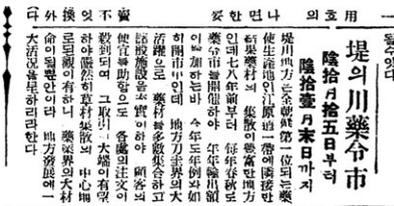
위의 기사에서 ‘금년에’라는 문구의 의미를 미루어 보면 제천약령이 공식적으로 처음 개최된 것은 1928년이라는 추론이 나온다. 1931년 11월 19일자 동아일보는 11월 19일부터 추기 약령을 개시하고 면(面)공영(公營)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추론해 본다면 이른 시기에 설치되었던 원주약령시와 충주약령시가 제천약령시의 신설과 빠른 성장으로 인해 경쟁관계에서 도태되었다고 볼

15) “제천약령시개시 3월 15일부터”-“堤川藥令이되엇다함은客年十月에자세히本報에소개한바어니와今年에도 春期藥令을開市한다는대協贊會에서는 준비에奔走중이라더라[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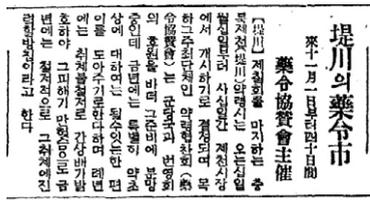
여지도 있겠다.

충북과 강원일대가 우수약재의 진상과 공납의 대상지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공식적 약령시 설치 이전에도 상당정도의 약재거래 시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20년대 말의 공식적 제천약령시 신설로 이어지고 이는 그 이후 충청북도와 강원일대의 유수의 약령시장으로 성장하는 바탕으로 기능하고 다른 약령시 기능과 뚜렷이 구별되는 생산 중심의 약재시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론은 1934년 12월 2일자 조선일보기사¹⁶⁾를 살펴보면 그 타당성이 한층 강화된다. 제천약령시가 점점 번성하게 된 이유는 ‘제천지방은 전조선 제일위되는 약재 산지인 강원도 일대에 인접한 결과 약재의 집산이 풍부한 지방’이기 때문이라 전하고 있다. 이는 중외일보 1928년 11월 12일자 기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분석이다.



<1934년 12월 2일 조선일보 기사>



<1935년 10월 28일 조선일보 기사>

16) “堤川의약령시

음시월십오일부터음십일월말일까지”

“제천지방은전조선제일위되는약재생산지인강원도일대에인접한결과약재의집산이풍부한지방인데칠팔년전부터 매년추추로약령시를개최하여 년년수출액이 증가하는바 금년도연례와여히개시중인데 지방규모계의대활약으로약재를다수집합하고제반시설을충실히하여 고객의편의를조함으로 각처의주문이쇄도되어 그취인이대단히유망하야엄연히초재집산의 중심지로된관이유하니 약업계의대재명이될뿐만아니라 지방발전에일대활황을정하리라한다.”

같은 신문 1935년 10월 28일자 기사¹⁷⁾에 ‘제칠회를 마지하는 충북 제천(堤川)약령시는 ……’ 라는 기사로 보아 늦어도 1929년에는 공식적으로 제 1회 제천약령시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2) 제천약령시의 성장

일제시대의 중일전쟁과 해방 후의 중국 공산화이후 당재 수입의 두절이 제천약령시의 경우는 역으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천이 약령시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태백산맥의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과 배후에 위치해 있는 많은 향토 약재의 생산지와 인접하고 있다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당재 중심의 수입규제는 자국산 약재의 채취, 생산을 촉진하고 이는 제천을 약재거래의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제천약초상가 번영회 회원의 인터뷰는 이를 잘 증언해 주고 있다.

“제천의 약재시장이 정확히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는 남아 있는 기록이 없어 확인하긴 어렵다. 하지만 아무튼 본인이 어려서부터 머리가 허영계 쉰 아저씨들이 새벽길을 나서 도부짐을 메고 강원도, 충청

17) “堤川の 藥令市

래십일월1일부터사십일간
약령협찬회주체”

“[堤川]제칠회를 마지하는 충북제천(堤川)약령시는 오는십일월십일부터 사십일간 제천시장에서 개시하기로결정되어 목하그주최단체인 약령협찬회(약령협찬회)는 군당국과 번영회의 후원을 바다 그준비에 분망중인데특별히약초상에 대하여는 될수잇는한 편이를 도와주기로한다하며 래년에는 취제불철저로 간상배가발호하야 그 피해가 만헛슴으로 금년에는 철저적으로 그취제에진력할 방침이라고 한다.”

18) 안상우 외, 2008, 앞의 책의 내용을 토대로 확충·요약하였다.

도 일대의 장길에 나선 것을 지켜보아 왔다. 어른들이 오래 전부터 장터 일에 익숙했던 것으로 보아 적어도 할아버지 세대에서부터는 제천에 약재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지게나 봇짐을 메고 새벽 장길을 나섰던 장사꾼을 제천 지역말로 앞장꾼이라 불렀으며 큰 가게에는 이들이 10-20명씩 속해 있어 엽판이나 공산품을 가지고 산길마을이나 타지역의 장에 가서 약초나 산채 등속과 거래해 가지고 돌아왔다. 제천지역에서 직접 대단위로 약재를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은 아니다. 이곳은 조선시대나 일제시대를 통해 강원도와 충북일대의 청정지역에서 산출되는 산야초와 임산물이 집하되는 곳으로 예로부터 약재가공 기술이 뛰어났다. 제천약령시를 중심으로 가내 수공업 형태로 형성되었던 황기절단 작업장들이 수십 군데를 헤아릴 정도로 성업했으며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약재가 이곳으로 들어와 절단 가공되어 전국에 보급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동시장이나 수출용 약재포장을 위해서는 이곳의 숙련된 절단 솜씨를 거쳐야만 한다. ……” (ㄱ〇〇, 54세)

ㄴ〇〇(남, 70세 가량)는 군 제대 후 20대인 60년대 초부터 약종사업을 시작해 올해로 40여년째 약재관련 거래에 종사하고 있다.

“제천은 구한말 때부터 정선과 태백산 일대의 약재가 취합되는 집산지로 당시 유일한 자생 시호의 산출지인 정선과 가장 인접거리에 있고 청주를 거쳐 서울 경기지역과 대구약령시, 전라도 일대로 배급되는 중간거점이었다. 당시 정선 일대에서는 중요 한약재로 빼놓을 수 없는 시호를 비롯하여 죽시호, 천궁, 당귀, 백출, 작약, 도라지 등이 산출되었으며 당시의 약재는 재배품이 아니고 모두가 야산에서 직접 채취한 산채였다. 지금은 산채꾼들로 대부분 없어지고 해서 거의

회귀해졌다. 강원도에서 채취한 산작약을 강작약(江芍藥)이라 하는데 품질이 좋아 매우 인기가 있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주요 약재 수출국이었는데 황기, 작약 등을 해외로 많이 수출하였다. 제천은 이러한 약재가 집하되어 전국 각지의 수요처에 공급되거나 거래되는 중심거점이었다. 구한말 시기에는 주로 하루 이상 걸리는 200여 리 길을 도보로 정선을 오갔으며, 해방 이후에는 차량을 이용해 오갔다. 일제시대 이후 철도가 놓이고 도로가 뚫리면서 유통이 활발해졌지만 그 이전에도 제천에 약재가 많이 집하되었던 것은 사실이다.……”¹⁹⁾

또 다른 ○○한약방의 80대 한약업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처음 한약방을 시작할 때 근처 20-30군데의 한약관련 업소가 존재하였다고 전하고 해방이전에 제천, 대구, 평양이 중심 약령시였다고 전하고 있다.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업사의 증언에 의하면 태백, 평창, 영월, 제천, 단양 지역의 약재가 제천으로 집산되어 각지로 배급되었다고 한다. 그의 한약방 앞 골목인 ‘동문방 거리(통문거리)’가 중심약령시 거리였다고 한다. 그는 ‘학다리’ 근처(현재 복개)(과거 영월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로 과거에 농산물이 집하되었고 이어 시장형성이 형성되어 조부 때부터 상당한 규모의 약령시가 존재하였다고 전한다. 옛날에는 주로 자연산 채취약재위주의 약재거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재배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황기, 강활, 창출, 백출, 당귀, 복분자, 음양곽, 복령, 세신 등이 제천의 유력 산출품이다. 60년대 이후 대규모 시장을 끼고 있는 경동한약시장이 급성장하였지만, “전국에서 초재는

19) 이 증언자는 제천약령시가 구한말 시기부터 발달하였다고 증언해주고 있는데, 공식적이었던 자연발생적이었던 최대로 늦추어 잡아도 1900년대 전후해서 제천에 약재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천 와서 가져간다”, “전국에서 초재는 제천에서 사야한다”, “전국에서 초재는 제천이다” 라는 말들이 있을 정도로 제천에서 한약재의 채취, 생산이 왕성하였다. 일제시대에도 제천에서 생산된 약재를 봉검으로 대구로 약재 이송하였다고 한다. 특히 그는 할아버지가 지개로 지고 약재를 대구로 운송하였는데 약 일주일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제천약령시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다른 지역의 약령시가 대부분 여타 지역에서 생산된 약재의 중간거래 장소였다면 제천의 경우는 약재 생산을 중심으로 약재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방이후 남북분단과 중국과의 약재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약초시장이 특히 번성하였다고 한다. 약재 채취와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제천의 건조, 절단기술을 중심으로 한약재 가공능력도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대담자도 조부의 약초거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일제시대에도 제천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약재거래시장이 존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그가 증언한 내용 중 주목할 것은 바로 당시에는 재배약재보다 자연산 채취약재가 주로 거래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2〉 30년대 중앙시장 모습)²⁰⁾

20) 제천시, 1999, 『사진으로 보는 제천의 옛 모습』, 문예사.

즉 제천을 중심으로 한 강원, 충북지역의 자연환경이 최고의 약재산출에 적합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자연산 약재가 제천 약재산업의 강력한 성장 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점점 고품질 약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차별화된 약재생산은 다른 지역의 약재생산과 비교할 수 없는 제천약령시만의 고유의 강력한 성장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제천지역 약재산업이 보유한 독보적인 절단, 가공기술과 최고급 자연산 약재를 결합한다면 이는 제천약령시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의 국내 약초시장은 서울의 경동 약령시장이 가장 규모가 커서 전체 유통물량의 약 40%가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제천(20%), 대구(15%), 영천(15%), 부산(10%)²¹⁾순으로 약재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약재 유통 시장은 생산지 시장과 유통지 시장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는데 유통과 소비 시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경동약령시장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과 산지유통 시장에선 제천약령시장이 수위를 점하고 있다. 이 점은 공식적 통계 수치가 잘 보여주고 있다. 산지시장은 다수의 생산자 및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생산물의 수집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 그 지역의 5일장을 통해서 거래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큰 규모의 산지시장은 제천, 영천, 금산, 영주 등이 있다. 그 중 제천의 약초 시장은 주위에 풍부한 한약재 자연 및 재배 생산지를 끼고 있어 한약재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수집시장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년 보고서, 『국내 재배 한약재의 수급전망과 유통체계 개선방향』에는 거래량 점유비율을 경동시장(40-70%), 제천(10-20%), 대구(10-20%), 그리고 영천, 부산, 금산, 광주와 기타(10-25%)순으로 잡고 있다.

290 지방사와 지방문화 12권 2호

〈표 1〉 국내약재시장의 점유율

시장별	경동시장	제천	대구	영천	부산·금산
점유율	40%	20%	15%	15%	10%

산지수집 시장은 오랜 경험과 정보, 기술 등을 가지고 있으며 산지를 소비자의 중간유통업자인 도·소매상에게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교적 지역별 품목별로 전문화되어 있다. 품목의 주산지에서는 단위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이 생산자와의 계약 또는 알선 등에 의해서 한약재를 수집, 분류, 표준화하여 제조업자, 한의사 등과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집기능을 수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시장으로는 제천, 영천, 금산, 전주, 정읍, 정선 등이 있다.²²⁾

산지중심이었던 기존의 한약재 시장이 거대배후도시를 끼고 있는 서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는 하지만 산지 중심의 약초 시장인 제천약령시가 서울 다음으로 많은 유통량을 점하고 있는 이유는 제천약령시가 한약재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수집시장의 독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생산, 수집, 유통이 제천약령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다.

4. 제천의 의약문화

1) 제천지역 의약설화

제천에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민속과 설화가 다수 보존되어 있다. 기자(祈子), 태몽(胎夢), 태점(胎占), 출산(出産), 산후(産後), 방역제(防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국내재배 한약재의 수급 전망과 유통체계 개선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疫祭) 냇고개, 아미산 약수굴, 옷마루 등 크고 작은 다수의 의료설화와 민속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 문화자원은 향후 제천의 의료문화산업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냇고개 설화

조선조 숙종 때 제천 향교골에 대대로 내려오는 선비 집안에 정훈(鄭渾)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훈(渾)은 연로하신 아버지가 우연하게 병을 얻어 병세가 심히 위독하였다. 효성이 지극한 훈은 백방으로 약을 구해 써봤으나 효험이 없고 병세는 점점 기울어졌다.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약을 사다드릴 도리가 없고 그렇게 앓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하루는 스님을 만난 선비 훈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며 아버님의 병환이 위중하신데 무슨 약을 써야 하는지 알려만 주시면 목숨과 바꾸더라도 구해다 드리겠으니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곡하게 말하였다. 이에 스님은 그 효성에 감동하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심히 어려운 일어요, 그것은 당신이 죽으니 그 약을 누가 아버님께 드리겠소.”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선비 훈은 “약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부모를 위한 일이니 후회는 하지 않지만 약을 갖다드릴 수 없으니 안타까운 일어요.” 스님께서 약을 구해 아버님께 드린 후에 죽게 해줄 수는 없느냐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스님은 한참 염주알을 굴리다 고개를 들고 “나무관세음 보살을 30만 번을 외고 감악산(紺岳山) 왼쪽 깊은 골 큰 바위 밑에 가면 천마라는 약이 있을 터이니 캐다 드리시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고마워 절을 하고 고개를 드니 스님은 간곳이 없지 않은가. 훈은 감악산 왼쪽 큰골 큰 바위 밑을 찾아 ‘나무관세음 보살’을 30만 번을 외우며 찾아가니 과연 일러준 약이 있는데 약을 캐는 순간 훈은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얼마가 되었을까 사자를 따라 염라대왕 앞에 선 훈을 보고 “너는 어이해서 만지면 안 되는 약초에 손을 대었느냐. 네 수명은 많이 남았지만 약초를 캔 죄로 너는 죽음을 달게 받으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닌가. 훈은 울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아버님께 약을 드린 후에 죽게 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옆에 섰던 사자가 염라대왕에게 “세상이 모르는 약초를 문수보살이 정훈의 효도에 감동되어 가르쳐 준 것입니다”하고 말하는 것이다. 염라대왕은 한참 생각 끝에 “네 효성에 감동되어 너를 돌려보낸다. 그러나 네가 약을 달여서 아버지께 드리면 바로 병이 낫는다. 너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인데 소원이 없느냐”하고 묻는 말에 그 자리에서 “제가 죽고 아버님 병환만 나오시면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그저 감지덕지할 뿐이옵니다.”하고 진심에서 고마움을 사례하니 염라대왕은 “과연 보기 드문 효자로다. 돌아가라. 너는 오늘 사시까지 아래고개에 닿지 않으면 주인 없는 고혼이 되리라. 빨리 가라.” 하였다.

훈은 큰절로 사례한 뒤 약 뿌리를 들고 단숨에 뛰어오니 아래 고개에 자기 상여가 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죽었던 훈의 영혼이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어 소리치자 상여꾼이 열린 시신을 끌었다. 죽었던 훈은 벌떡 일어나 약초를 들고 달려가 아버지께 약초를 다려드려 병을 낫게 되었다.

이후부터 아래 고개를 뉘 고개라 부르고 훈은 80세까지 살았다 한다. 이 뉘고개는 지금 제천시 번두리로 제천중학교에서 하소리로 가는 나지막한 비탈길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큰길이다.

○ 아미산 약수굴 설화

제원군 수산면 오터리와 덕산면의 경계를 이루며 아미산이 서 있다. 명산이라 일컬어지는 아미산은 백미산, 아미산, 배모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소위 장군대좌형을 하고 있어 명당자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아미산 동쪽 중턱에 굴이 뚫려 있고 그 속에서 감열하고 청상한 약수가 용출하고 있다. 이 물은 다시 흘러 폭포를 만드는데 명천선수로 이름이 나있어 이를 마시면 갖가지의 병은 물론 마음까지 깨끗해진다고 하여 예부터 유명하다. 꽤 오래된 옛날, 삼복의 무더운 계절 산 아래 사는 젊은 사람이 삼복더위를 누르기 위해 개를 잡아 개고기탕을 끓여 먹고 술도 얼근하게 취하여 약수동굴에 오게 되었다. 염천과 술기운으로 갈증이 심해 약수를 마음껏 마셨다. 그런데 젊은이는 약수동굴로 나오자마자 동굴 앞에 엎어져 죽고 말았다. 신성한 약수물을 개고기를 먹고 와서 부정하게 하였으므로 산신과 부처가 노하여 죽게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약수동굴 근처에서는 살생을 하지 않고 부정스러운 짓을 안 하게 되었다. 아미산 약수의 존재는 『조선환여승람』 제천편에서도 확인된다.

○ 옷마루 설화

제원군 송학면 시곡리의 옷마루(漆宗)라는 동네가 나타나다. 이 동네가 생겨난 것은 이삼백은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옷마루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원마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동네가 생기기 전 이곳은 옷나무가 많은 산골이었다. 하루는 한 선비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선비는 속병을 앓다가 강산이나 유람하며 좋은 약재나 구해 보려고 길을 떠나 이곳저곳을 지나다가 마침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선비는 몹시 피곤한데다 속도 불편할뿐더러 갈증마저 심하여 땀을 씻으려고 그늘 밑에 가서 쉬기로 했다. 한참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졸졸졸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선비는 몹시 목이 말랐던 터라 물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다. 옷나무가 뺨뺨이 들어선 속에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밑에서 맑은 샘물이 솟고 있었다. 선비는 기다시피

하여 옷나무 사이를 빠져나와 샘물 옆까지 가서 입을 샘물에 대고 실컷 마셨다. 여느 물맛보다 향긋하고 시원하여 막혔던 속을 씻어 내리는 것 같아 기분이 상쾌해졌다. 물을 마신 선비는 벌렁 누워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네가 내 물을 마셨으니 병이 나을 것이다.” 선비는 잠에서 깨어 꿈을 생각하며 또 한번 샘물을 마음껏 마셨다.

선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신기하게도 선비의 속병은 씻은 듯이 나아버렸다. 선비는 샘물 먹은 일을 얘기했다. 이것을 들은 동네 사람들 중에 속이 나쁜 사람 몇이 가르쳐준 샘물을 찾아가 마셨더니 그 사람들의 병도 깨끗이 나았다. 이 소문이 이 동네 저 동네 퍼지자 병이 있는 사람이 수없이 찾아가 그 샘물을 마시고 속병을 고쳤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약수터는 약물래기라고 불리어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까닭에 이곳에 집을 짓고 이사를 하여 장사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얼마 안 있어 동네 하나가 생겨나고 약물래기 약수터 근방은 옷나무가 많았으므로 옷마루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 선심골 전설

청풍면 연론리에 ‘선심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다. 험준한 산골짜기와 나무도 울창하고 계곡에서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에 ‘선심’이라는 효녀(孝女)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심골이라고 이름한 것 같다. 조선 중엽 때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 골짜기에 선심이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오랜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선심이가 집안 일을 도맡아 꾸려갔다. 선심이는 효성을 다하여 간병했지만, 백약이 무효로 어머니의 병은 더해갔고 병석에 누운 지도 3년이 되었다. 선심이는 좋은 약초를 캐다 다려드리고자 끼니를 굶으면서 이산 저산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그가 찾는 약초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더니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금방 소나기가 쏟아질 것 만 같았다. 선심은 비를 피할 생각으로 큰 바위 밑으로 들어가 쉬게 되었다. 선심이는 피곤한 탓으로 깜박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더니 백발의 노인이 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선심아! 어서 일어나 발밑을 보라” 고 한다. 꿈이었다. 선심이는 노인의 말대로 발밑을 살펴보니 돌 사이에 지금까지 못 봤던 풀 한포기가 나와 있었다. 선심이는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그 풀을 캐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뿌리는 백년 묵은 산삼이었다. 선심이는 집으로 돌아와 ‘산삼’을 정성껏 달여 어머니께 드렸다. 이 약을 든 어머니는 신기하게도 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기운도 회복되었다.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산삼’을 캐기 위해 ‘산삼’이 나왔다는 산으로 달려가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산삼’을 찾아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선심의 효성에 감동하여 산신령이 도와준 것이다. 이 전설의 골짜기도 수물로 물속에 잠기었지만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에서 이 전설의 뜻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천에는 의약과 관련된 많은 설화가 내려오는데 의약설화 가운데는 명의설화, 약초설화, 효자설화 등 다양한 부류의 형태가 존재하며 이것들은 대부분 일반 백성들의 의식 속에 살아남아 전해졌던 전통의약의 원형을 간직한 채 다양한 형태로 변모되어 전해져 오고 있다.²³⁾ 이 밖에 출생에 관한 기자숙, 태몽, 태점, 임신, 출산, 산후숙 등이 다양한 양태로 전해지고 있다. 또 방역제의 풍속에서 전염병이나 위급한 재해에 집단으로 대응하여 위난에 대처하고자 하는 의료민속도 전해지고 있다.

23) 안상우 외, 앞의 책, 109~113쪽.

2) 제천시역 의약인물

제천시는 우리나라 국토의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의 규모는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약소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관련 의학서적들이 다수 전해지고 있으며 의약인물도 많이 배출하였다.

제천의 대표적인 의약인물로는 허준과 어깨를 나란히 한 호성공신인 선조의 어의 이공기(李公沂)를 들 수 있다. 이공기는 선조대의 『의림촬요』를 저술한 양예수, 『동의보감』의 주저자 허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선조 임금을 진찰한 조선의 저명한 어의였으며, 어의의 최고직인 수의(首醫)의 직까지 올랐다. 그는 어의로서 명성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임진년의 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것으로 인해 허준과 같은 호성공신(扈聖功臣) 3등으로 봉해졌다. 조선을 구한 훌륭한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허준이나 양예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의 업적과 행적은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공기에 관한 기초문헌 자료가 발굴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 의학 관련 역사서는 이공기의 생애와 행적을 풍부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그동안 제천의 대표적 의학인물로 손꼽을 수 있는 어의 이공기의 사적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 되었다.

이공기는 의관으론 보기 드물게 허준과 함께 호성공신 3등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호성공신이란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중심으로 한 왕실을 호위하는데 큰 공이 있어 특별히 공신으로 봉해진 사람을 말한다. 의관으로 호성공신으로 봉해진 인물로는 허준과 이공기 뿐이다.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으로 왜란 극복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서애 유성룡도 호성공신 2등으로 봉해진 것을 본다면 의관으로서 호성공신 3등 즉 정공신으로

봉해진 것은 대단한 영예가 아닐 수 없다. 이공기는 인조 22년(1644)에 동반관계(東班官階) 중1품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추증되었다. 대를 이은 어의 아들 한풍군 이영남(李英南)도 승정대부에 이르렀는데 부자 2대에 걸쳐 의관으로서 중 1품직까지 올랐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연이어 수의의 직에 오른 것으로 보아 한계군 이공기와 한풍군 이영남을 중심을 제천의 한산 이씨는 대대로 한의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세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다수의 의학관련 인물이 발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에는 한계영당이 있으며 한계군 영당 소장 고문서인 옥축(玉軸)은 선조가 1604년(만력 32)에 호성공신 3등에 봉한 별교서로 이 교서는 증지 신지제(申之悌)가 지었고, 글씨는 석봉 한호가 썼으며 대나무 실로 만든 종이로 되어 있다. 이 교서는 전쟁이 끝난 직후에 받은 것으로 다른 가문에서는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일부 집안에서만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적 회소가치가 매우 높으며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하다.**

이공기와 더불어 제천의 의약인물로는 사상의학 대중화를 이끈 원지상이 있다. 원지상은 원주 원씨 시중공계 원익겸의 25세손이며 생육신의 한사람인 원호의 직계 후손이다. 원지상은 원세신의 장남으로 고종 1885년 6월 1일 충북 제천군 봉양면에서 출생하였다.

부 원세신의 영향으로 화서학과의 학풍을 이어받아 근학하는 분위기 속에 자랐으며, 결정적으로 유인석이 1895년에 충북 제천으로 이주하면서 더욱 화서학과의 영향 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지상은 조선말기 제천 일대를 거점으로 한 유인석의 항일 의병투쟁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며, 1910년 25세경에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제천에서 여주로 이주하였다.

원지상은 사상의학을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엮은 『방약합

편』의 체계를 따른 『동의사상신편』을 1929년에 출간하였다. 『동의사상신편』은 1929년 원지상에 의해 발행된 이후 사상의학 관련 임상서적들에 전범으로 받아 들여져 이후 대부분의 사상임상관련 서적들이 이 책의 편제를 따르고 있다. 그와 같은 사례로서 박석언의 『동의사상대전』, 이도경의 『가정비요 사상요람』, 박인상의 『동의사상요결』, 염태환의 『동의사상처방집』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원지상의 『동의사상신편』은 이제마의 사상체질의학을 보다 용이하게 보급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상의학의 대중적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연유에서 화서학과의 학맥에 속하는 원지상이 사상의학에 접하고 임상적 응용에 유용한 『동의사상신편』을 편찬하였는지는 화서학과와 사상의학의 철학적 친연성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후기의 성리학은 율곡과 퇴계를 따르는 기호학과와 영남학파가 대립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들의 논의를 뛰어넘으려는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된다. 그 중 화서 이항노는 당시 성리학의 당파성을 대변하던 주리, 주기 논쟁을 뛰어 넘기 위하여 ‘心合理氣,’ 즉 심(心)을 단지 리(理)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또는 단지 기(氣)만으로 이루어졌다는 논의에서 벗어나, 심(心)이 리(理)를 중심으로 하여 기(氣)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논쟁을 뛰어넘어 급변하는 시대변화의 대응에 유용한 철학적 원리를 개발하고자 했다. 바로 이 ‘심합리기’ 설이 사상의학의 유학관과 심(心)을 중심에 놓는 체질론과 일정정도 원리적 상통함을 가지고 있고, 이점이 바로 의암 유인석을 매개로 하여 화서학과와 학맥에 속하는 원지상이 사상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천의 유학적 배경에서 탄생한 『동의사상신편』은 이제마의 사상체질의학을 보다 용이하게 보급하는데 결정적 역할 수행하였는데, 그 중심에 바로 제천에서 나고 자라고 학문을 이루었던 원지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밖에 제천에는 전존하는 의학서가 많이 있다. 최근 제천에서 조선판 『의학입문』초간본²⁴⁾이 발견되었다. 이는 충청북도와 제천 지역의 의학문화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²⁵⁾

이러한 제천의 다양한 의약문화와 의약인물은 제천이 약령시 뿐 아니라 의약의 고장임과 무관하지 않으며 한방산업 문화콘텐츠의 주요한 원천 자료로 활용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5. 제천약령시의 특징

제천약령시는 다른 지역의 약령시가 대부분 여타 지역에서 생산된 약재의 중간거래의 장소였다면 제천의 경우는 약재생산을 중심으로 약재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방이 남북분단과 중국과의 약재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해방이후 약초시장이 특히 번성하였다. 제천약령시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통의 요충지 및 풍부한 생산지 보유

제천의 약령시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태백산맥의 동서를 연결

24) '의학입문'은 중국 명나라 때 이천이 지은 한의학 서적으로 모두 19책으로 구성됐다. 이 서적은 동의보감보다 30여 년 앞서 출간돼 동의보감 편찬에도 많이 이용됐으며 조선시대 의사선발고시에 기본과목으로 채택됐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6호로 지정됨.

25) 안상우 외, 2008, 앞의 책, 82~89쪽.

300 지방사와 지방문화 12권 2호

하는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과 배후에 위치해 있는 많은 향토 약재의 생산지와 인접하고 있다는 점이 때문이다. 당재 중심의 수입규제는 자국산 약재의 채취, 생산을 촉진하고 이는 제천을 약재 거래의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제천은 충북과 강원 지역의 풍부한 생산 임·산야를 보유하고 있어 약재의 질적, 양적 생산량이 높다. 또한 약초 재배를 위한 천혜의 조건으로 수확량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 약초생육에 적합한 석회암 지대로 인산, 유기물, 마그네슘 함량이 적정하여 고품질의 약초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관령과 비슷한 산간 고랭지의 기상조건으로 약초뿌리가 단단하여 저장성이 강하고 약효가 우수하여 전국적인 명성이 높다. 이 밖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교차가 심하여 약초의 생육조건이 매우 우수하다.

2) 한약재의 우수성

다음의 내용은 지리지 속의 제천과 인근 지역인 청풍의 약초 자원에 관한 내용이다. 제천지역의 역사시대 식생은 조선시대 고문헌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동국여지승람(1481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여지도서(1765년)』, 『임원십육지(1827년)』, 『대동지지(1864년)』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일제시대 문헌으로는 『조선일람』이 있다. 군(郡), 현(縣) 별로 물산(物産), 토산(土産), 토의(土宜), 토공(土貢) 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제천과 인근 지역인 청풍의 물산은 다음과 같다.

〈표 2〉 지리지 속의 제천과 청풍 약초 자원

지리지·읍지	제천	청풍
世宗實錄地理志 1454년(端宗 2)	土貢: 蜂蜜 黃蠟 漆紙 猪毛 熊毛 黃毛 虎皮 狐皮 狸皮 眞茸 石茸 胡桃 芝草 藥材: 當歸 茯苓 神懶膽 紫檀香 洛石 白朮 人蔘 土產: 辛甘草 蓴菜 紅花	土貢: 蜂蜜 黃蠟 漆紙 眞茸 石茸 芝草 虎狸皮 藥材: 紫檀香 茯神 當歸 茯苓 人蔘 滑 石 土產: 沙鐵 棗 松茸 辛甘草
東國輿地勝覽 1481년(成宗 12)	土產: 蓴 鐵 棗 蜂蜜 松茸 紫草 白花 蛇 安息香 茯苓 辛甘菜	土產: 絲 水鐵 松茸 棗 蜂蜜 紫草 石 蕈 人蔘 茯苓 白花蛇 羚羊 墨 石硫黃 石鍾乳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中宗 25)	土產: 蓴 鐵 棗 蜂蜜 松茸 紫草 白花 蛇 安息香 茯苓 辛甘菜 (新增) 羚羊角 防風	土產: 絲 水鐵 松茸 棗 蜂蜜 紫草 石 蕈 人蔘 茯苓 白花蛇 羚羊 墨 石硫黃 石鍾乳 (新增) 靑土 綠礬
輿地圖書 1765년(英祖 41)	物產: 蜂蜜 松茸 紫草 茯苓 辛甘草 防 風 進貢: 羌活 乾漆 錦銀花 藜蘆 連翹 白 朮 白朮 白朮 柴胡 五味子 猪膽 胎水 黃芪 黃柏	物產: 棗 山查 松耳 石蕈 紫草 蜂蜜 訥魚 錦鱗魚 雉 朱土 靑土 水鐵 進貢: 乾漆 當歸 連翹 木通 白朮 白朮 山藥 柴胡 五味子 清蜜 胎水 澤瀉 黃芪 黃柏 藜蘆
林園十六志: 倪圭志 1827년(純祖 27)	鐵 棗 紫草 松茸 當歸 茯苓 防風 柴胡 蓴 安息香 羚羊角 白花蛇 蜜 蠟	鐵 靑玉 綠礬 硫黃 石鍾乳 棗 松茸 石 蕈 人蔘 茯苓 柴胡 羚羊角 白花蛇 蜜 蠟
大東地志 19세기 중반	土產: 鐵 棗 蜂蜜 紫草 松茸 辛甘菜	土產: 鐵 棗 紫草 松茸 石蕈 蜂蜜 訥 魚 錦鱗魚 鼈 墨
忠清道邑誌 18세기 후반 19세기 중반 堤川縣誌 淸風府邑誌	土產: 蓴 鐵 棗 蜂蜜 松茸 紫草 白花 蛇 安息香 茯苓 辛甘草 羚羊角 防風 貢獻: 羌活 乾漆 羔毛 桔萸 金銀花 當 歸 藜蘆 牧丹皮 白朮 白茯苓 白茯苓 白 芍藥 白朮 白朮 山查肉 細辛 柴胡 蓮子 五葛皮 五味子 牛膝 威靈仙 人蔘 赤茯 苓 地榆 車前子 清蜜 草龍膽 杏仁 黃芪 黃柏 黃地榆	土產: 棗 松茸 石蕈 紫草 蜂蜜 雉 訥 魚 錦鱗魚 朱土 靑土 水鐵 火石 進貢: 白朮 乾漆 胎水 澤瀉 當歸 木通 黃芪 五味子 山藥 藜蘆 清蜜 連翹 柴胡 黃柏等
湖西邑誌 1871년 堤川縣誌 淸風府邑誌	土產: 蓴 鐵 棗 蜂蜜 松茸 紫草 防風 (并今無) 貢獻: 羌活 乾漆 羔毛 吉更 金銀花 當 歸 藜蘆 牧丹皮 白朮 白茯苓 白茯苓 白 芍藥 白朮 白朮 山查肉 細辛 柴胡 蓮子 五葛皮 五味子 牛膝 威靈仙 人蔘 赤茯 苓 地榆 車前子 清蜜 草龍膽 杏仁 黃芪 黃柏 黃地榆	物產: 絲 水鐵 棗栗 山查 松茸 蜜 紫 草 訥魚 錦鱗魚 朱土 靑土 人蔘 茯苓 白花蛇 羚羊 墨 石鍾乳 綠礬 石硫黃 吉 貝 羅菴 火石 雉 貢獻: 乾漆 金銀花 當歸 獨活 藜蘆 白 朮 白茯苓 白茯苓 白朮 白朮 山查 山藥 石清 柴胡 五味子 人蔘 川芎 清蜜 胎水 澤瀉 黃芪 黃柏

302 지방사와 지방문화 12권 2호

제천에서는 예로부터 다양한 물산이 생산되었다. 이들은 지역의 풍토와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제천과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진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은 여러 약재 가운데에서도 그 품질이 우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천지역에서 생산되었던 한약재의 종류가 매우 우수하고 다양하였다는 사실은 상기 지리서의 기록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한약재 생산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지만 단양군수로 있던 이황의 제자 황준량(黃俊良)²⁶⁾이 조정에 보낸 상소를 검토해 보면 제천의 약재가 다양하고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그 산출양도 그 못지않게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丹陽郡守黃俊良 上疏陳民弊十條曰……其十曰 藥材之弊 蠢蠢村氓 不辨藥名 而俾出童殺 抱布以貿 則哀我樛獨 非所任矣 其最難者 熊膽 · 麝香也 白芨 · 人參也 茯苓 · 地黃也 百匹之布 未盡其材 一草之貢 皆有人情 則力有所未及 固也 且并定牛黃 亦出民間 則專委堤川 惠此 下民 何不可之有 伏願勿有棄捐之地 特減難備之材 使蒙一分之惠 共躋 仁壽之域 則勿藥有喜 召和穹壤 而蘇復之一端也²⁷⁾

26) 황준량(黃俊良 : 1517~1563)은 퇴계 이황(李滉 : 1501~1570)의 제자로서 당시에 청백하고 지방행정에 능하다는 평가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단양군수로 재직하면서 올린 상소문 가운데 단양에서 내야하는 약재의 공납을 제천에서 맡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황준량이 이렇게 상소할 수 있었던 것은 제천에서의 약재 생산량이 단양의 것을 합하여도 좋을 만큼 상당히 풍족한 양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7) “丹陽郡守 黃俊良이 상소를 올려 민폐 10조를 진달하기를, …… 열째는 藥材에 대한 폐단입니다. 약 이름도 모르는 무지한 촌백성들에게 생판으로 판출하여 내게 하므로 포목을 가지고 가서 사게 되니 하소연할 데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감내할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응당과 사향, 백급과 인삼, 복령과 지황입니다. 1백 필의 포목을 가지고도 이 약재 한 가지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거기에는 모두 人情物(뇌물)까

현재 제천에서 주로 재배하는 약초는 황기·당귀·천궁·황정·더덕·오미자·오가피·독활·고본·인삼 등이며, 가장 널리 재배하는 약초는 황기, 재배면적이 넓은 약초는 인삼·황정·더덕·두충, 오가피·율무·도라지 등이다. 특히 제천의 황기는 질과 효능이 뛰어나 전국 유통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제천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약초는 해발 250m 이상의 준산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산간지 경사지는 배수가 양호하여 병충해가 적기 때문에 약초의 친환경 재배 및 다년생 약초 재배가 가능하다. 기후적으로는 내륙 산간지역으로 기온의 연교차뿐만 아니라 주야간의 온도차가 심하여 약초의 품질이 우수하고 저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예로부터 약초를 널리 채취하고 재배하였기 때문에 약초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어 이러한 고품질 약초를 생산할 수 있다. 다음은 현재 생산되는 약초의 현황이다.

〈표 3〉 제천에서 재배하는 주요 약초²⁸⁾

약초명	황기	더덕	황정	두충	오가피	두릅	인삼	율무	도라지
농가수(호)	304	193	130	107	97	86	71	50	49
면적(ha)	274.3	51	59.9	50.2	33.4	22.5	75.8	27.2	18.2

약초명	장뇌삼	작약	오미자	산지재배더덕	홍화	천궁	기타	계
농가수(호)	40	34	33	23	19	6	421	1,663
면적(ha)	17.2	6	8.2	6.8	6	0.9	127.8	785.4

지 있으므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배정된 우황은 백성들이 내게 되니 이는 전적으로 제천에만 맡겨서 이 백성들에게 은택을 내리는 것이 불가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한 고을을 버리지 마시고 갖추기 어려운 약재를 특별히 삭감하여 조금이나마 은혜를 입게 함으로써 태평성대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면 모든 병폐가 저절로 없어져 하늘과 땅에 화기가 감돌 것이니 이 또한 소생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明宗實錄』 권22, 明宗 12年 5月 7日(己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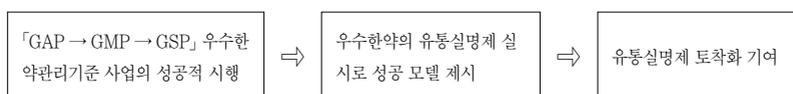
28)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http://www.jatec.or.kr>

지역별로는 덕산면에서 황정·독활·장뇌삼·더덕·목단·지황·상황버섯·홍화·잔대(사삼) 등을 농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다. 백운면에서 재배하는 약초는 당귀·인삼 등이고, 봉양읍에서는 마(산약)를 재배한다. 송학면에서는 지황·백출·황기·우슬 등을 재배한다. 수산면에서 나는 약초는 자초·천궁·작약 등이고 청풍면에서는 두충이 흔하게 재배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천에서는 여러 가지 품질이 우수한 약초가 다량으로 산출되며 조선시대 공납 및 진상의 주요 품목을 재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약초의 우수성은 강원, 충북, 경북 3도의 접경 산간 자연 생약초의 집산지로 풍부한 자연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제천약령시의 풍부한 약재가공과 기술인력

제천약령시는 약재 채취와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약재의 건조, 절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한약재 가공 인력도 많아 약재가공에 있어서도 다른 약령시와는 다른 독특한 장점을 보인다. 특히 전국 생산 약초의 50% 이상이 제천약초시장에서 절단, 가공, 포장되어 유통되는데 황기, 당귀는 전국 유통량의 80%를 차지한다. 따라서 약초 관련 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시행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한약의 품질관리와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을 기재토록 하는 유통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것을 표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약유통규격의 과정



이로 인해 제조(가공) 및 유통에서 우수성을 검증 받은 한약(약초)을 유통시킴으로써 제천약초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우수 한약재 재배관리규정(GAP), 우수한약 제조관리규정(GMP), 우수한약 유통관리기준(GSP)등의 국제규격을 도입하여 제천 약초의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제천약초 유래 건강기능성 식품, 기능성 한방화장품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약초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1차 산업(농산물/약초) 위주의 구조에서 2, 3차 산업(고품질 한약재)의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절실하다.

4) 제천약령시 문화적 특이성

제천약령시는 단순히 한약재의 유통 기능만을 담당했던 시장형태가 아닌 문화사적 의미로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문화의 전파를 들 수 있다. 제천약령시의 개설은 전국 각지의 한약재의 집결을 가져왔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 지방의 서로 다른 언어습관과 생활문화를 전파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정보와 풍습이 교류되었고 이것은 곧 민족문화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이끌었다.

둘째, 제천약령시는 문화유산의 보고이다. 제천약령시에서는 제천의 한약을 매개로 생산과 유통, 분배와 소비 과정이 총체적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 속에서 다층적 문화유산이 발생했고 제천 약령시는 현재까지 그 문화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제천의 의약문화인 전존하는 의약고문서 및 제천의 의약인물, 제천의 설화 등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시간적 연속성이다. 제천 약령시는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내려온 시간적 가치를 지닌다. 그 밖에 제천 약령시는 보건의료

적, 인구학적, 인문지리적, 종교제의적, 민속학적 측면을 망라한 다각적 문화복합 권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제천약령시의 전통과 의약문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그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제천약령시의 기원, 발달 그리고 흥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제천약령시는 구한 말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제천약령시의 공식적 기원은 1929년으로 약 80년의 전통을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 후 중일 전쟁, 태평양전쟁, 해방 후 남북 분단에 의한 외국약재수입의 두절 등으로 국산약재 시장의 성장이 부각되었으며 그 가운데 제천약령시가 가장 두드러졌다. 일제 시대 당시에는 다수의 약령시가 설치되었으나 계속 되지 못하고 쇠퇴 소멸하였으나 제천약령시는 생산과 소비 시장을 포함하면 대규모 소비시장을 끼고 있는 서울 경동약령시장 다음으로 큰 규모로 성장하였고 생산지 약령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수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천의 의약문화인 의약설화와 의약인물 및 의약관련 고문서 등을 통해 풍부한 역사문화 현장으로서의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제천 지역은 다양한 역사적 의학인물과 의학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새롭게 조명된 어의 이공기와 그의 아들 이영남은 대대로 내의원 수의를 지냄으로써 제천지역의 의학인물 중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 또 한국한의학의 독자성을 대표하는 사상의학의 대중적 보급에 관해서는 제천의 의학인물인 원지상이 있다. 장구한 제천약령시의 과거와 현재가 잘 어우러진 곳으로 다양한 한의학 유산과 결합하여 제천의 문화관광 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제천약령시는 태백산맥의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 및 배후에 위치해 있는 풍부한 생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지와 읍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수한 한약재가 생산되고 있다. 또 제천약령시를 중심으로 풍부한 약재가공과 기술 인력이 성장하였으며, 이와 함께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여타 약령시의 기능과 뚜렷이 구별되는 '약령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제천약령시를 중심으로 제천의 의약문화와 전통을 제천한방산업에 접목 시킨다면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는 제천을 '한의약' 단지로 특성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방바이오엑스포가 국가적, 지역적 정책의지와 함께 제천시와 시민의 관심과 의지가 어우러진다면 한층 더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308 지방사와 지방문화 12권 2호

【참고문헌】

연구논문 및 보고서

- 권오민 외, 2008, 「근대 신설 약령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4.
- 이동필 외, 1998, 「국내 재배 한약재의 수급전망과 유통체계 개선 방향」서울: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상우, 2008, 「제천한방의 역사와 이공기」,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제천시.
- 안상우 외, 2008, 「제천약초 뿌리찾기와 한의약 문화연구」, 제천시.
- 장철수 외, 2000, 「임산약용자원을 활용한 농산촌지역 소득증대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국내재배 한약재의 수급 전망과 유통체계 개선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단행본

- 경상북도, 2004, 『경상감영의 종합적 연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경상북도, 2007, 『영충』,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공우석, 2003, 『한반도 식생사』, 아카넷.
- 권병탁, 1986, 『대구약령시론』, 영남대학교출판부.
- 권병탁, 1986, 『약령시연구』, 한국연구원.
- 김대길, 2000, 『시장을 열지 못하게 하라』, 가람기획.
- 박경용 외, 2001, 『대구약령시 한방문화 연구』, 대구광역시·약령시보 존위원회.
- 안덕균, 1985, 『세종시대의 보건위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정승모, 1992, 『시장의 사회사』, 웅진출판.

제천시, 1999, 『사진으로 보는 제천의 옛 모습』, 문예사.

제천시지, 2004, 『제천시지』, 제천시지편찬위원회.

웹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웹서비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신문.

민족의학신문. <http://www.mjmedi.co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한국역사정보종합검색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310 지방사와 지방문화 12권 2호

(Abstract)

Tradition & Medical Culture of Jecheon Drug Market

Ahn, Sang Woo(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t the 9th reign of King Hyojong[1658], the State stipulated the establishment of drug markets at each province including Jeonnado, Gyeongsangdo and Gangwondo, which can be an official origin of 'Drug Market' in the Joseon period.

Drug markets were held Daegu, Wonju, Jeonju, Gongju, Jinju, Cheongju, Chungju, Daejeon, Gaeseong, and Jecheon, etc. and the drug market is also called 'Yeongsi.' Amongst all, Jecheon drug market was an important spot of traffic and it was adjacent to a producing center of medicinal stuff, so it could grow into the center of dealings in medicinal stuff. The Jecheon drug market was not only in charge of distribution function of Oriental medicines but also in charge of the function of cultural history.

First, due to the opening of the Jecheon drug market, the local people swarming from all over the country propagated their languages and cultures while exchanging medicines; thus, it can be judged that the spatial meaning of a drug market was in charge of cultural history function.

Second,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distribution, division and consumption of the medicinal stuff. there arose a variety of medicine culture heritages and up to the present, such cultural heritages have been well preserved. Third, the Jecheon drug market assumes time perpetuity of succeeding to the time-

honoured tradition without interruption until now. Besides, the Jecheon drug market has healthcare, geographical, and folklore value, which proves that the Jecheon drug market played a role of a medical culture center for the central inland mountainous region.

This research tried to set up the Jecheon drug market and its medical culture through the general relations with its neighboring drug markets centering on the Jecheon drug market.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intended to take a look through its related documents, newspaper articles, and interviews with its related characters.

Key Words : Oriental medicine, Drug market, Jecheon, medical culture, medical tale

